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정대웅(요한보스코) • 보좌 신부 : 김찬미(가비노)
사목회장 : 서영찬(프란치스코) 267-471-9048 •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0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AM 11:30 (Sunday School Vacation until Jan. 26)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청년 미사)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136 예수 부활하셨도다
제 1독서 : 사도행전 8,5-8.14-17
화 답 송 :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 2독서 : 베드로 1서 3,15-18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요한 14,15-21
봉헌 성가 :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215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성체 성가 : 165 주의 잔치
172 그리스도의 영혼
파견 성가 : 244 성모의 성월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오전 10시	연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영원한 안식
		박순권(카타리나)	가족	
		김정용(레안데르)	가족들	
		손정연(데레사) 박경남(미카엘라) 이유님(헬레나)	권율리아나	
	생	이준영(멜키올)	가족	건강 회복 주님 은총 축복
		이재화(사도요한) 신부님	이영호 가족 일동	축 사제서품 13주년 영육간 건강
		배경수(모세)가정	배마리아	성가정 축복 감사

생명의 말씀

사랑과 계명

가끔 연락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설치 예술가인 남편은 작업의 특성 때문인지 언제나 군화처럼 생긴 작업화를 신었는데, 예술가답게 작업화도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가볍고 편한 운동화를 남편에게 선물했습니다. 20여 년 작업화만 신던 남편은 부인이 선물한 운동화 덕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가던 남편은 진열된 운동화 한 켤레를 보고 맙니다. 그 운동화는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홀린 듯 매장 안으로 들어가 운동화를 집어든 그는 부인을 떠올렸습니다.

'운동화를 사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게다가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이렇게 마주쳐 버렸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해!'

어떡하면 부인을 설득해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찰나의 순간 억만 가지 수를 헤아린 남편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걸 사달라고 하면 야단은 야단대로 맞고 운동화는 운동화대로 포기해야 할 테니, 차라리 저지르고 야단을 맞자. 그럼 운동화는 남을 거 아냐.'

뿌듯한 마음에 운동화를 사 들고 귀가한 남편은 비장한 얼굴로 기꺼이 부인에게 이실직고했습니다. 이만저만한 이유로 운동화를 샀으니 부인은 저를 벌하고 사하소서. 아멘! 자진신고를 마치고 고개를 든 남편은, 그러나 크게 당황했습니다. 부인의 눈가에 깊은 슬픔이 맺혔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운동화를 봤을 때 내 생각이 안 났어? 난 좋은 걸 보면 늘 당신이 먼저 생각났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요한 14,15)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사랑을 내보이며 친교를 이루는 가운데 일치에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랑을 드러낼 방법을 가르쳐주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요한 14,21)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여 우리 삶 가운데 현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명은 사랑을 구실로 서로를 옭아매는 구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명은 서로가 품고 있는 사랑을 드러내 주고 그것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1요한 5,3)이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1요한 2,3)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문화홍보국장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5월 18일	**에릭** : 신영섭
5월 19일	**꼴레떼** : 장서은
5월 22일	**율리아** : 이선미 김경숙 김종례 한다영 박향균 이준희 최은희

■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1,120.-

도네이션 Nazario Jimenez Jr. $350.-

이동수(4-5) 허정삼(5-8) 이길환(4-5)
이영석(4-5) 김성호(5-6)

공지사항 · 공동체 소식

♡필라델피아 대주교님 Nelson J. Perez 공지 사항입니다

필라델피아 교구 내 모든 성당은 평일, 주일 모든 미사는 추후 다시 공지가 있을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성당에서 미사는 없지만 매 주일 오전 11시 live streaming broadcast (라이브 방송)으로 대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필라 교구 웹사이트 http ://archphila.org covid 19/나 Archbishop Perez's Face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청하는 기도와 묵주 기도를 각자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모으기 안내

한아름과 식당 영수증은 성당에 미사가 없는 관계로 당분간 날짜에 관계없이 모아서 성당 입구에 있는 영수증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씨 : 물건 구입시 성당 번호 "**89020**"이나 "**성당**"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에 대한 수익금이 성당으로 적립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당 영수증 모으기 안내

본가 , 서라벌, 토담골, 뮤타, 코리아 가든, 코리안 바베큐, 상하이, 코코카페, 종가집, 고향산천, 5가 파리 제과, 고기 BBQ(옛한촌), 수라, 소 코리안 그릴(옛힐링포차) 꽁트 헤어 살롱 영수증의 3% 수익이 됩니다.
* 위의 식당 명단에 이름이 없는 곳은 영수증 수익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